

학습주제: 고대 유교: 공자

원전의 핵심 문장 읽기

① 나의 도(道)는 하나로 통한다. 그것은 충(忠)과 서(恕)이다.

② 인(仁)이란 문을 나서서 일을 할 때는 마치 큰 손님을 대하듯 하고, 백성을 대할 때는 마치 큰 제사를 모시듯 하는 것이다.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마라.

③ 예(禮)란 사치스럽기보다 차라리 검소해야 하고, 상(喪)은 잘 치르기보다 오히려 슬퍼해야 한다. 자기 자신을 이겨내고 예(禮)로 돌아가야 한다[극기복례(克己復禮)].

(그러므로) 천하에 도(道)가 있으면 예악(禮樂)과 정벌(征伐)은 천자(天子)에게서 나오고, 천하에 도가 없으면 예악과 정벌이 제후에게서 나온다. 만약에 예악과 정벌이 제후와 대부, 가신들에게서 나오게 되면 나라를 잃지 않는 경우가 없다. 천하에 도가 있으면 정치에 대해 백성들이 이러쿵저러쿵 더 말할 필요가 없다. 30)

군자는 의(義)에 밝고, 소인은 이해관계(利)에 밝다. 38) 군자는 도(道)를 걱정하지 가난을 걱정하지 않는다. 39) 군자는 얻을 것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한다[견득사의(見得思義), 견리사의(見利思義)]. 40)

④ 정치는 덕(德)으로 하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북극성이 제자리에 가만히 있기만 해도 뭇별들이 그 주위로 모이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정치란 반듯함(正)이고, 이름을 바로잡는(正) 것이다. 임금은 임금다워야 임금이라 할 수 있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신하라고 할 수 있으며, 부모는 부모다워야 부모라 할 수 있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자식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하는 사람이) 법제와 금령으로 이끌려 하고, 형벌로 다스리려고 한다면, 백성은 벗어나려고만 하지 부끄러워하지(恥) 않는다. 그렇지만 덕으로 이끌고 예(禮)로써 다스리면 부끄러워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바로잡아 선하게 된다. 44)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재화가 부족한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화를 모두에게 골고루 분배”⁵⁶⁾할 수 있는 대동(大同)의 이상 사회를 꿈꾸었다. 즉 “큰 도(道)가 실현되면 천하는 모두의 것이 되고, 어질고 유능한 자가 선출되며, 자기 부모나 자기 자식만을 사랑하지 않고 두루 사랑한다. 나이든 사람은 여생을 편히 마칠 수 있고, 젊은이에게는 일자리가 주어지고, 어린아이는 마음껏 자랄 수 있게 해주며, 과부나 홀아비, 고아나 병든 사람도 모두 편히 부양 받는다.”

